



주간통일정세 2008-18(2008.04.28~05.05)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1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강원도 과수농장 시찰(5/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군에 위치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농장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유리한 키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수종과 품종들을 배치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철따라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올과일과 늦과일을 합리적으로 잘 배합하고, 오래된 과일나무를 계획적으로 갱신하고, 빈 그루를 제때에 보충해 과수원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청춘과원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언급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을 수행한 인물에 대해서는 미언급

● 김정일, 軍의 대민지원 강조(5/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720부대의 직속중대를 시찰하고 군인들의 대민지원에 대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중대가 인근 주민들을 돕는데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민들과의 혈연적 연계는 인민의 군대인 우리 군대의 본성적 요구이고 존재방식”이라며 군인들의 민간부문 지원에 대해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제409군부대 산하 중대를 시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전투력을 높이는 기본담보”라고 강조하고 “중대를 일당백의 전투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는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동행

● 김정일, 노동절 맞아 합창단 공연 관람(5/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1절을 맞아 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날 공연에 만족을 표시하고 공훈국가합창단에 대해 감사를 전했으며 이날 공연된 관현악 합창곡 ‘눈이 내린다’에 대해 “주체음악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특출한 기념비적 대결작”이라고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 * 이날 공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동행해 주목,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군



대장들도 김 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

나. 정치 관련

- **北, '6·15-10·4선언' 관철 강조(5/4, 노동신문; 5월호, 금수강산)**
 - 노동신문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15선언의 기치 밑에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민족의 자주 통일 위업은 지난해 역사적인 10·4선언의 채택으로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 북한의 대외 홍보잡지인 '금수강산'(5월호)도 '북남협력사업은 송고한 애국사업'이라는 논평에서 "북남협력을 떠나서 그 무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말하려는 것은 빈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북남협력사업을 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며...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
- **제국주의 민심교란 책동 봉쇄 강조(5/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미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의 "민심교란 책동과 심리 모략전, 사상 문화적 침투"를 "첫째가는 격파대상"이라며 "자그마한 요소도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짓밟개 버려야 한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2면 전면에 게재한 '제국주의 심리전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제국주의의 오랜 침략의 역사에서 오늘처럼 심리전이 전면적으로 감행되고 그 도수(정도)가 절정에 이른 적은 없었다"면서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적들이 퍼뜨리는 부르주아 사상문화에 물젓지 않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
- **北, 새 통일교육안은 반통일안(5/2,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반영해 내놓은 통일교육 기본 계획안에 대해 "통일부 아닌 분열부만이 내놓을 수 있는 반통일안, 대결안"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통일교육인가 대결교육인가' 제목의 논평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안보관련 내용과 북한 인권실상 등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통일교육 기본 계획안을 거론, "우리의 체제와 존엄에 대한 용납못할 비방·중상과 대결논리로 일관돼 있다"고 반발
 - 논평은 통일교육의 3대목표중 하나인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북한이 비핵·개방을 하지 않는 한 통일이 없다는 '반통일관'이라고, '건전한 안보관'에 대해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한 '전쟁관'으로, '균형있는 북한관'은 실용적이고 상호주의적인 남북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대



결론'이라고 해석

- **北 “남북관계 경색, ‘경제살리기’ 도움안돼”(5/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 외교에 대해 “사대매국 행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로 남북관계가 파국을 예고하고 있고 이는 새 정부 경제살리기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미·일 정상의 지지를 얻은 데 대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비핵·개방 3000’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떠맡기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주장

- **평양방송, “대북경협 4원칙은 대결 선언” 반발(4/30,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30일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경협 4대 원칙’에 대해 “사실상 북남 사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수작”이라고 반발
 - 방송은 ‘이른바 실용정부의 범죄적 정체’라는 제목으로 내보내고 있는 논평 연재물의 4번째에서 대북경협 4원칙은 “6·15 이후 북남 사이 이룩된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 엮기 위한 대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 **北, 방북불허에 “반통일정책 산물” 비난(4/30,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4월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5차 남북 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 참가 신청자중 8명에 대해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한 것을 “반통일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 ‘우리민족끼리’는 30일 ‘극악한 반통일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의 조치에 대해 “북남 사이의 사소한 통일 움직임도 전면 차단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사소한 통일 의지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

- **노동신문, 사회주의 고수 강조(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사회주의 길에서 이탈해 사회주의 깃발을 내리면 인민들은 불행과 재난을 당하고 노예가 된다”면서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강조
 - 신문은 “사회주의로 가는 자주와 평화의 길이며 민족번영의 길”이라면서 “발전도상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후과를 가시고 자주적 발전과 민족번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 길 밖에 없다”고 주장



● 北, 6·15, 10·4선언, 정치홍정 안돼(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은 결코 정치적 홍정물이 될 수 없으며, 일개 정상배가 부정한다고 그 민족사적 의의가 훼손될 수도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남조선(남한)의 보수 집권세력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자주통일 시대에 이룩된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엎기 위해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이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 위업 실현의 기초”라고 거듭 강조

다. 경제 관련

● 北, 국가별 개발능력 강화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5/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제64차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원유와 식량가격의 상승,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현 시기 직면한 세계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적 행동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북한 대표는 아태지역 각국이 “자기의 구체적 조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민족경제와 사회를 건설하도록 추동하는 것과 함께 그 능력을 강화하는 데로 지역협조가 지향”돼야 하고, “남남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천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나라(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천년기(밀레니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지역 나라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개발’이란 주제로 열린 ESCAP 제64차 총회에는 남·북한을 비롯해 62개 회원국 각료와 실무자들이 참석

● 4월 각 부문 경제계획 달성(5/4,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4일 전력, 석탄, 철도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4월 계획을 “빛나게” 수행했다고 주장, 평양방송은 전력부문에서 “허천강, 강계청년, 장자강,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고(수립하고) 물관리와 구조물관리 설비운전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수력발전관리국적인 월 전력생산계획을 109.6%로 수행했다”고 보도
- 석탄부문에서 각 지역 탄부들의 “증산투쟁”에 힘입어 내각 석탄공업성 차원에서 월 석탄생산계획을 101.1%로 끝냈으며, 금속공업 부문에서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은률, 재령광산의 광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계획보다 많은 철정광을 제철소들에 보내주었다”고 소개
- 또 철도수송부문에서는 철도성 차원에서 월 수송계획을 100.3% 달성했고 육해운성의 경우도 무역화물선 수송량은 126.3%, 국내화물



선 수송량은 111.2%, 자동차 수송량은 105% 수행했다고 보도, 아울러 기계공업성도 월 계획을 102.8%로 수행했고, 경공업성에서도 월 계획을 104% 완수

● 제11차 춘계국제상품전람회 개최(5/3, 조선중앙통신)

-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람회에는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 운전기재(운송장비),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 출품된다”고 언급
- 이번 전람회에는 중국과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시리아, 스위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스페인, 베트남,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대만의 기업들이 참가

● 제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최 (5/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의 과학기술 제전인 제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번 축전에는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지 400여개 단위의 간부와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 등 7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시·군·도 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80여건의 연구성과와 자료들이 출품
- 최태복 노동당 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용진 교육상, 변영립 국가과학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열린 폐막식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축전컵과 메달, 증서, 공적상 등이 수여

● 노동절맞아 “경제강국 건설” 강조(5/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1일 ‘5.1절(국제노동절)’ 118돌을 맞아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부의 “사회주의 신념 허물기”에 “총대”로 맞서 싸우며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
- 노동신문은 5.1절기념 사설을 통해 “오늘 제국주자들은 인민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 버리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공세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면서 “근로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는 오직 총대로만 타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기름’나는 수유나무림 수만ha 조성(4/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식용유 등의 원료로 쓰이는 기름 확보를 위해 전역에 수만ha의 수유나무림을 조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황해북도 서흥군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기름나무림’ 조성에 나서 이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



- **北무역상, 모든 나라와 경제 협력·교류 확대(4/29, 조선중앙통신)**
 - 리명산 무역상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12차 총회에서 “조선(북한) 정부는 앞으로도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평화롭고 공정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다방면적인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리 무역상은 4월 20~25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총회에서 “조선 정부는 이미 마련된 생산 토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대외무역을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정보기술 발전에 큰 힘을 넣는 한편 국제기구들을 통한 개발협조도 장려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

라. 군사 관련

- **北조평통, 南 ‘무력증강’ 비난(5/2, 조평통 서기국보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일 남한이 ‘F-15K’ 전투기와 장거리 유도탄 도입을 결정한데 대해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무력증강책동”이라며 “전쟁억제력 강화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한이 “우리(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에 이어 미국의 전투기들과 최신장거리 정밀타격용 순항미사일 수백기를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위협천만한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평화적 망동으로서 그들의 ‘선제타격’론이 실지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이런 결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방미에서 “미제침략군(주한미군) 감축중단과 남조선의 미국산 무기구매 지위를 ‘나토’급으로 높여 줄 것을 애걸한 것”과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최신 무기 도입책동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결탁하여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해 보려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를 더욱 똑똑히 드러내놓고 있다”고 주장
- **軍力강화 최우선은 불변 입장(5/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반제계급적 입장은 총대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군력 강화에 언제나 최대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총대 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민이 준엄한 투쟁 속에서 간직한 고귀한 혁명의 철리”라며 “총대를 틀어쥐고 군력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한·미, 4월 170여회 공중정탐(4/30, 조선중앙통신)**
 - 국군과 미군이 4월 중 북한에 대한 “공중정탐”을 170여회 벌였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주장
- **北, 김태영 합참의장에 격한 비난(4/29, 평양방송)**
 - 북한의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 핵 무기 대책 발언으로 ‘선제타격론’ 논란을 빚은 김태영 합참의장에 대해 “온 민족에게 화(禍)만을 몰아오는 우환거리로 하루빨리 매장되어야 한다”고 비난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AI 방역사업 강화(5/5, 조선중앙방송)**
 - 내각의 농업성 수의방역소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특히 AI를 퍼뜨리는 철새들의 감시와 통보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밀집돼 있는 동·서해안 지역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조류의 유동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소한 이상징후가 나타나도 제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방송은 언급
- **월북 만담가 申不出 재평가 움직임(3월호, 조선예술)**
 - 1947년 월북, 승승장구하다 1960년대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일제시대 최고의 만담가 신불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의 월간 예술잡지 ‘조선예술’ 3월호는 ‘만담의 재사 신불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의 과거 활동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최근에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신불출의 예술 창조 활동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감회 깊이 회고하시면서 그의 만담 작품들을 다시 출판할 데 대한 은정깊은 사랑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
 - 잡지는 또 김정일 위원장이 “전국적인 만담경연도 조직하여 우리 시대 새로운 만담수들을 찾아 키울 데 대한 조치”도 취했다고 언급
- **北도 덩다 …함흥 31.9도(5/3, 조선중앙방송)**
 - 함흥지역은 3일 낮 최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인 31.9도를 기록,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 29도, 사리원 28.5도, 개성 27도, 원산 3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기상관측 이래 당일 최고기온을 나타냄.
- **2008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귀국(5/2, 조선중앙방송)**
 - 4월 26~27일 제주도에서 열린 2008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이 1일 평양으로 돌아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여자 52kg급 박명희), 은메달 1개(여자 48kg급 박옥성), 동메달 3개(남자 60kg급 김경진, 여자 57kg급 박옥성)



급 최경실, 여자 63kg급 원옥임) 등을 획득

● **지재권 보호·장려 ‘증장기 전략’ 추진(5/2, 조선신보)**

- 북한이 증장기 전략을 세워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장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그러나 이 전략의 세부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서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주고 있으며 발명가로 등록된 과학자·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 또 상표법에 따라 제3자가 상표를 출판·인쇄·매매하거나 허위·위조상표를 붙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인격적·재산적 권리’가 부여된다고 신문은 소개
- * 북한에서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는 ‘상표법’(1998.1 제정), ‘발명법’(1998.6), ‘저작권법’(2001.3),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6), ‘원산지명법’(2003.8) 등이 있음. 또 북한에서 지적소유권 업무는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 저작권사무국, 출판·문화지도기관, 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등이 분담

● **북한, 베이징올림픽에 60명 이상 파견(4/30, 교도통신)**

- 북한이 2008베이징올림픽에 역대 최대 규모에 버금가는 선수단을 파견할 전망, 교도통신은 30일 리경일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국장이 “현재 50명 정도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냈고 5월 말이 되면 60명 이상이 출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北,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표창(4/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9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프로그램 기술 발전에 기여한 일꾼과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며 “그들은 최근 새롭고 능률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개발해 나라의 컴퓨터 기술 발전과 기술혁명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힘.

● **北 평양소주 뉴욕에 첫선(4/30, 연합뉴스)**

- 북한의 대표적인 소주인 평양소주가 29일(현지시간) 미국에 첫선, 뉴욕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수입한 평양소주는 통관과 검사 등 수입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뉴욕 퀸스의 보관창고에 도착, 이날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판매에 들어감.

● **北 화장품, ‘은하수’ 수출 확대(4/29, 조선신보)**

- 북한에서 개발된 기능성 화장품인 ‘은하수’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조선신보에 따르면 ‘은하수’ 화장품은 현재 북한 내는 물론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늘리기 위해 대량 생산과 품질 개선에 노력

● **김일성대, 나노金 건강음료 개발 (4/29,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실험연구소에서 나노미터(nm) 크기의 금(金) 입자를 섞은 건강음료를 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이 나노금 음료가 “지능활성 음료”이자 “건강장수 음료”라며 “물 1리터에 수 nm 크기의 금이 30mg 풀려 있는데, 나노금은 쉽게 흡수돼 온몸을 순환하므로 인체의 생리활동에 신기한 작용을 한다”고 설명

● **봉송개막식엔 김영남, 폐막식엔 김영일 참석(4/29 조선신보)**

- 성화봉송과 관련하여 “조선(북한)은 오랜 친선의 전통을 가진 중국에서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심정으로 성심성의를 다했다.”고 보도, 신문은 특히 28일 주체사상탑 광장에서 열린 봉송 개막식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데 이어 김일성경기장의 폐막 행사에는 김영일 내각 총리가 참석했다고 보도

● **北병원, 골괴사증에 줄기세포 이식치료(4/28, 조선신보)**

-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김만유병원이 골괴사증(骨壞死症)에 줄기세포를 이식해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성화봉송 저지 시도 올림픽이념 도전(4/2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8일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던 사실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처사는 올림픽 현장과 이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주장, 평양 성화 봉송은 주체사상탑, 청류교, 우의탑, 중국대사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체육관, 평양역, 평양대극장, 김일성광장, 천리마동상, 개선문 등을 거쳐 김일성경기장에서 끝나며, 성화는 오후 7시 전용기로 베트남으로 이동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6자회담 5월말 재개 가능성(4/30, 연합)**

- 김숙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워싱턴 DC에서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Hill) 차관보를 만나 북한의 시리아 핵 개발 지원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의 후속 조치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며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도 의무를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



나. 북·미 관계

● 北, 테러지원국 해제에 '지극 정성'(5/2, 연합)

- 북한이 미국과의 핵프로그램 신고 협의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되는냐'고 물을만큼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특히 플루토늄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에 '전문적인 것은 내가 모르니 전문가들끼리 얘기하게 하자'고 해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전문가들을 이끌고 지난달 말 방북,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짐.

다. 북·중 관계

● 中중소기업, 원가상승 압박에 북한에 관심(5/5, 연합)

-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남쪽에 위치한 인구 50여만 명의 작은 도시인 덩타(燈塔)시 공상연합회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조선봉화회사의 초청으로 7일 간 북한을 둘러보고 돌아왔다고 중국 언론이 5일 보도
- 이번 방북의 목적은 해외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단은 방북 기간 북한과 유성페인트공장, 의류공장, 압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각각 체결, 이중 덩타시 차이리자(彩麗佳)화공유한공사는 북한에 300만유로(약47억원)을 투자해 유성페인트공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 중
- *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모색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도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 고용조건이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져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있고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채산성까지 나빠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中후진타오에 열차사고 위문(4/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최근 열차 충돌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데 대해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박의춘 외무상, 상하이 방문(4/29, 조선중앙통신)

- 2007년 5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방중기간 상하이(上海)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통신은 박 외무상이 4월 26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소식을 전하며 "외무상 일행은 중국 방문기간 베이징(北京)시와 상해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고 보도, 통신은 그러나 박 외무상이 상하이를 방문한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방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라. 기타외교 관계

- **대외문화연락위 대표단 귀국(5/4, 조선중앙방송)**
 - 문재철 위원장 대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대표단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
- **스위스 전국여성이사회대표단 방북(5/4, 조선중앙통신)**
 - 아니타 파르니 전국여성이사회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 전국여성이사회대표단이 3일 평양에 도착
- **김정일, 이집트 대통령 생일에 축전(5/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축전을 보냄.
- **北노동당-브라질 공산당 협조합의서 체결(5/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브라질 공산당이 2일 평양에서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의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브라질 공산당의 주제 헤나투 하벨루 전국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사인
 - * 북한과 브라질은 2001년 수교
- **北노동당-우간다 군사대표단 회담**
 - 北노동당·우간다 군사대표단 회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29일 방북 중인 우간다 당·정부 군사대표단과 만나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회담에는 북한의 최태복 노동당 비서와 우간다의 아마마 음바바지 국방장관이 참석
- **공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 체코 방문(4/28, 연합)**
 - 유럽 순방길에 나선 공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 체코에 도착, 궁 부상은 29일 헬레나 밤바소바 체코 외무차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 부상은 다음 달 5일 폴란드를 방문해 북한과 폴란드 간 연례 차관회담에 참석할 예정, 이어 궁 부상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 궁 부상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EU 대표부 개설 문제 등 EU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짐.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北 대남비난서 “반정부 투쟁” 선동 재등장(5/4, 조선중앙방송; 우리민족끼리; 5/3; 5/2, 통일신보; 5/3, 노동신문; 5/2,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4일 ‘더욱 노골화되는 반공화국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F-15K 전투기 21대 추가 도입 계획 등을 비난하면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이명박 전쟁정권을 반대하는 반전, 반괴뢰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도 4일 ‘전쟁과 대결에로 질주하는 전쟁정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역시 F-15K 구입 계획 등을 비난하면서 “남조선(남한) 인민들은 친미보수집단의 전쟁책동을 더 이상 묵과할 경우 자신들과 민족앞에 어떤 파국적 후과(결과)를 초래하겠는가에 대해 똑바로 알고 ‘전쟁정권’을 반대하는 반전, 반 ‘정부’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 최근호(5.3)도 “이명박전쟁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고, 2일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이명박 전쟁 ‘정권’을 반대하는 반전, 반괴뢰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3일 등록금 급등문제를 거론하면서 “인민을 반역하는 리명박 ‘정권’에 하루빨리 파멸의 철추를 안기는 것”이라는 말을 했고,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은 2일 ‘북침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호전정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결집단인 이명박 호전정권을 하루빨리 파멸시켜야 한다”고, 지난달 29일엔 김태영 합참의장을 겨냥해 “하루빨리 매장돼야 한다”고 극언
- **남한의 쇠고기 개방 비난(5/2,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철저히 계산하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중앙방송도 최근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남한 당국이 (미국과) 일방적인 퍼주기식 협상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미친소병(광우병)에 걸릴 위험에 몰아넣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시위대가) 단죄했다”고 보도
- **北, 李대통령 새 한일관계 구축 비난(4/30, 연합)**
 - 북한의 ‘일제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



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매국배족 행위”라고 비난

- 이 단체 대변인은 일제의 한반도 산림자원 약탈의 근거가 된 ‘조선임야조사령’ 발표 90돌을 규탄하는 담화에서 “이명박을 비롯한 남조선(남한) 보수 집권세력이 ‘한일관계 복원’이니, ‘미래지향적’이니 하는 망발”을 했다고 이같이 주장

나. 남북교류

● 남북 첫 공동문학잡지 ‘통일문학’ 南 반입(5/5, 연합)

- “수령님”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는 등의 이유로 남한으로 반입이 불허됐던 남북 첫 공동문학잡지 ‘통일문학’이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4월 29일 남한으로 반입
- 6.15민족문학인협회 남측 관계자는 5일 “남북한 문인들이 공동으로 집필·발행한 첫 문학잡지인 ‘통일문학’ 1천400부를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4월 29일 개성을 통해 남한으로 반입했다”며 “통일부가 문제삼았던 일부 문구에 대해 북측에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원문 그대로 들여온 상태이며, 빠른 시일 안에 문학 관련 단체와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언
- 통일부 관계자도 “지난달초 ‘통일문학’의 반입을 승인했다”며 “잡지에 나오는 표현중 남한으로 반입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협회측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와 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

● 백두산 관광 연내추진 사실상 불가(5/5, 연합)

-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5월부터 진행기로 합의된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이 항공안전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연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밝혀짐. 더구나 정부는 지난 2005년 백두산 지구 현장답사를 통해 현재 삼지연 공항 활주로를 이용한 시범관광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참여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백두산 관광 합의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
-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진 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백두산 관광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된 민·관 합동사전답사 결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운항·관제·항행안전시설, 공항시설, 기상시설 등이 노후화하거나 고장”인 것으로 나타남.

● 현대아산 대북관광 순항...금강산 10만명 돌파(5/4, 연합)

- 현대아산에 따르면 올해 금강산과 개성 관광객은 5월 1일까지 각각 10만명과 4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현대아산의 전망치보다 20% 이상 넘어서는 것으로 금강산과 개성의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에 흔들리



지 않을 만큼 내성을 갖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총 10만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8천명에 비해 무려 두배 가량 늘어남. 지난해 35만명의 금강산 관광객을 유치했던 현대아산은 이처럼 실적이 좋게 나오에 따라 올해 목표인 43만명을 무난히 달성하고 최대 50만명까지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북측 주민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개성 관광 또한 폭발적인 호응, 2007년 12월 개성 관광을 개시한 현대아산은 올해 1월부터 5월 1일까지 총 4만90명이 개성을 방문해 10월이면 올해 목표인 10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北, 6·15행사, 서울 아닌 금강산서 개최 요구(5/2, 연합)**

-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당초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됐던 서울 대신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남측위원회 관계자가 2일 발표
- 남측위는 기존 합의를 감안해 서울에서 열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내부 회의를 통해 서울과 금강산중 최종안을 결정해 20일께 북측과 다시 협의할 계획, 개성 협의에서 당국자 참가 여부와 같은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북측은 “민족 화해 대회를 연다는 차원에서 민간끼리라도 행사를 열자”고 말했다고 남측위 관계자는 설명
- 북측은 금강산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정세상 난관이 있고,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가서 반대 시위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남쪽 당국이 예전만큼 강력하게 막아주지 못할 경우 우리(북)쪽도 이를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전언

● **정부, 北말라리아 방역에 118만불 지원(5/2, 통일부)**

-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말라리아 방역 사업에 118만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2일 발표

● **정부, 6.15행사 서울개최 승인 방침(5/1, 통일부)**

- 정부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작년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를 허용한다는 입장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운용시스템 개선 추진(4/29, 통일부)**

- 통일부는 29일 남북협력기금 운용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등을 반영,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통일부는 우선 기금 지원 결정과정에서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지원 의결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결정



- 통일부는 또 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달청을 통한 구매제도 도입 ▲정기 감사제도 도입 ▲외무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사업평가단’ 운영 등을 추진
- 또 기금 운용의 공과를 평가하고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금 지원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금 백서를 발간하기로 함.

- 北 무연탄 실은 북한선적 29일 울산항 입항(4/28, 연합)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신연철)은 북한산 무연탄 3천333t을 실은 북한 국적 창덕호(2천496t)가 29일 울산항 석탄부두에 입항, 무연탄을 하역한다고 28일 발표, 북한산 무연탄은 서울 소재 우리나라 기업인 대신자원(주)이 수입

- 북한군 장교 1명 판문점 인근으로 귀순(4/28, 연합)
 - 북한군 장교 1명이 28일 오전 4시50분쯤 판문점 인근으로 귀순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국무부 “힐, 싱가포르 안간다”(5/6)

-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음.
-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 회의에는 주아세안 신임대사인 스콧 마르시엘 대사가 미국을 대표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한국과장 금주 재방북”...핵 신고 막판 조율(5/5)

- 정부 고위소식통은 5일 “성 김 과장이 신고서 내용에 대한 세밀하고 실무적 협의를 위해 이번주 중 방북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일정 등은 미국 측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당초 뉴욕 채널을 통해 추가 협의를 하려했으나 북한의 시리아 핵협력 의혹 제기 등 주변 여건이 변했고, 북한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신고서 내용 협의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급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 “북핵 관련 모든 의혹 규명하겠다”(5/5)

- 정부는 5일 북한-시리아 핵협력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핵확산이라는 당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 장동희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핵비확산조약(NPT) 전체 평가회의를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의 핵비확산 분과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한국은 북핵 문제에 관한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6자회담을 통한 철저한 검증 및 핵폐기 조치들을 이행해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핵물질 방호 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은 (테러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들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 수단을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들을 전폭 지지한다”며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확산 가능성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 “북 핵신고에 핵탄두 빠져...추후 검증 가능”(5/2)

- 북한과 미국이 최근 평양 협의에서 사실상 합의한 핵 신고서의 내용은 플루토늄과 관련된 항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양 협의를 토대로 북한이 1~2주내에 중국에 제출할 핵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생산 관련 핵 시설 ▲그동안 추출한 플루토늄 총량 ▲5MW 원자로 가동일지를 비롯한 핵 관련자료 등이 포함되며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핵탄두(핵 폭발장치)의 수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번 평양 협의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플루토늄과 관련된 협의를 전문가들과 논의하라’는 입장을 밝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 미국의 실무팀은 북한측 전문가들과 내실있는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北 테러지원국 해제 24시간내 냉각탑 폭파”<WP>(5/2)

-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안에 불능화대상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보도
- 이 신문은 지난주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은 자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경우 곧바로 이같이 행동하기로 재확인했다고 익명의 외교관들을 인용, 전했다.

● 힐 “6자회담 수주내 열릴 수 있을 것”(5/2)

- 힐 차관보는 30일 방미중인 한나라당 박진, 황진하, 통합민주당 정의용, 김명자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 일행과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킨 북-시리아 핵커백션이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柳외교 “평양·워싱턴에 6자차원 북·미사무소 필요”(5/1)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북핵 6자회담 다음 단계인 핵폐기 논의가 잘 진행될 경우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평양과 워싱턴에 양측의 상주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유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9.19 공동성명에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포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6자회담에서 다음 단계인 핵폐기 이행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잘 매듭되면 이에 따라 미·북 관계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北, 美에 영변 핵파일 제공키로 잠정합의”<WT>(5/1)

- 워싱턴 타임스(WT)는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지난주 평양을



방문,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잠정합의를 이뤘으며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이 워싱턴과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발표를 미뤘었다고 전했다.

- 타임스는 한 의회 관계자가 미국이 북한이 2006년에 핵 실험을 한 장소에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직 행정부 관리는 이에 대해 그런 접근은 하기 힘들고 협상카드로는 가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10가지를 요구해 3가지를 얻고 앞으로 나가는 전술을 써왔다”고 말했다.

● 한·일, 도쿄서 북핵 6자회담 실무협의 개최(5/1)

-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외교 기획단장은 1일 오전 도쿄(東京)에서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 이행을 위해 조기에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담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北의 시리아 핵시설 지원에 높은 확신” <헤커 박사>(5/1)

- 헤커 박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에서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평가와 나아갈 길”라는 세미나의 특별강연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앞으로 핵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핵확산 활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
- 헤커 박사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브리핑에서 시리아의 시설물 주변에 재처리시설이 없었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유사하며 그곳에서의 플루토늄 생산은 핵무기 제조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쇄가 거의 도달한 상태이지만 북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은 핵시설을 재가동할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

● 부시 “北-시리아 핵협력 브리핑은 대북 메시지”(4/29)

- 부시 대통령은 “이번 공표를 통해 우리는 정책목표를 진전시키고자 했던 것도 있다”면서 “그중 하나는 북한이 플루토늄 활동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과 확산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또한 이란과 전 세계에 대해 중동에 있어서 핵확산 문제가 얼마나 (역내 정정을) 불안정하게 하는지 메시지를 보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란으로 하여금 그들의 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6자회담 내달말께 재개될 듯” <訪美 정부당국자>(4/29)

 - 미국을 방문중인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시리아 핵협력 등을 언급, “최근 우려되는 상황 진전과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겠다는 의지가 미국 뿐만아니라 북한측에서도 유난히 높다”면서 “미국측으로선 (6자회담에 대해) 단기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WSJ “라이스-힐이 부시 어리석게 보이게 해”(4/29)

 -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에서 북한이 작년 9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시리아의 핵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작년 2.13 합의 이후에도 약속을 위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가장 최근의 협상을 생산적이었다고 하면서 북핵 협상에서 ‘즐거운’ 대화를 지속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
 - 북한의 시리아와의 핵 협력은 테러 지원국의 수중에 핵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싹하기에 충분한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미 정부 내에서 시리아의 핵 문제가 중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라면서 시리아 핵 문제에 관한 정보의 공개도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고려하기에 앞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알고자 한 의회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

- CIA 국장 “시리아 원자로, 1년에 핵무기 2개분 플루토늄 생산 가능”(4/29)

 - 마이클 헤이든 미국 중앙정보부(CIA) 국장은 북한 협력 의혹이 제기된 시리아 원자로가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가동 1년만에 핵무기 1~2개분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NPT회의 개막…북-시리아 핵협력·이란핵 농고 공방(4/29)

 - 유럽연합(EU)과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서방 국가들은 이 문제들이 NPT 체제에 대한 위협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란과 시리아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회의에 북한은 참석하지 않음.
 - 오 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 대회의장에서 열린 회의에 우리나라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NPT의 3대 기둥인 핵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간의 균형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NPT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 실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NPT 체제는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3개 기둥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작동해왔으나 최근 일련의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 또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및 기후 변화로 인해 원자력 수요는 급증한 반면, 핵연료주기 민감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돼야 하는 상황에 처



해 있다”고 지적

● **한미, 북-시리아핵협력 불구 6자회담 지속추진 합의(4/29)**

-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나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마무리 짓고 6자회담을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회담을 마친 뒤 힐 차관보는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의 지난 주 북한 방문 결과와 6자회담 다음 단계 조치 등 6자회담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면서 “6자회담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밝혔음. 또 “북한이 그들의 요구사항과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면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과 의무를 확실히 이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음.
- 김 본부장은 “지난 주 성 김 한국과장이 지난 주 평양을 방문해서 협상을 잘 했다”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中 “6자회담, 진전 이뤄야 할 시점”(4/29)**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박 외무상은 이날 양 외교부장과 만남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 **성 김, 라이스에 북핵신고 협의 결과 보고(4/29)**

- 지난 22~24일 북한을 방문해 핵신고 문제를 협의한 성 김 과장은 지난 주말 라이스 장관에게 세부 협의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이번 주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음.
- 매코맥 대변인은 성 김 과장의 방북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현 재로선 핵신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미간의 추가 회동 계획은 없으며 뉴욕 채널을 통한 협의는 계속해나가되 일단 북한의 핵신고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설명

● **북-시리아 핵협력설 美발표에 오히려 의문 확산(4/28)**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미국의 Nuclear Information Project for the Americas(NIPAM)가 공개한 정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개로 인해 의혹이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의구심과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전문가인 존 울프스탈은 “(북한-시리아간 님은꼴) 원자로 디자인은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구형 영국제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비디오 만으로는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

● **시리아 “핵시설 사진은 이라크 WMD 조작 再版”(4/28)**

- 시리아의 알-바트 신문은 28일 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24일 제시한 시리아 원자로 추정 사진에 대해 “이 사진들은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가 WMD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했던 사진들을 연상시킨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거짓말은 기존의 시리아 압박 정책을 연장한 것일 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시리아는 다시금 미국의 의혹을 반박하고 우리가 아무 것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서 모든 전쟁과 위기의 배후인 미국과 달리 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 미·북 관계

● **“美 식량 50만t 대북지원 회의론 대두”<RFA>(5/3)**

- 미국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50만t의 식량지원을 제의했으나 오르는 쌀값으로 의회 예산청구가 어려워지고 있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사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美, ‘북한 종교탄압 우려대상국’ 재지정(5/2)**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일 ‘2008 연례 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수단 등 11개국을 종교의 자유와 신조를 억압하는 특별우려대상국(CPCs)으로 지정
-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사적·공적 종교활동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정부가 허용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폭넓은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며, 중국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탈북자가 기독교를 믿게 됐거나 한국의 교회와 잦은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 장기 구금, 혹독한 취조,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美 “WFP와 대북식량지원 논의...결론은 아직”(5/2)**

-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세계식량계획(WFP) 등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하고, “우리는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식량 또는 인도적 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행동



을 조건으로 다는 일은 없었고,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며 “우리의 기준은 밖으로 드러난 필요성이 있고, 그런 지원이 실제로 (식량부족 등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 美의원 “北인권논의 진전있어야 스티븐스 인준”(5/1)

-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은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거나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미국 정부의 분명한 다짐이 있을 때까지” 인준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브라운백 의원은 북핵 협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스티븐스 인준을 유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북한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들은 시리아에 (핵)시설을 세웠다. 클린턴 행정부 때도 비핵화협상을 하는 한편으로 (핵프로그램을) 구축했는데 또 그랬다”고 답변, 북핵문제도 인준 유보의 이유임을 내비쳤다.

● 美하원, 북한인권법 2012년까지 연장(5/1)

- 올해 9월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이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하워드 버먼)에서 처리됐다.
- 법안은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미국 직원에게 정착희망 의사를 표시한 북한 국적자나 시민에 대해서는 정착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하고, 미국의 보호를 원하는 탈북자를 위해 아태국가 정부의 협력과 허가를 얻도록 미국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상시직으로 전환토록 했음.

● 美 테러보고서 ‘北 테러지원국’ 잔류(5/1)

- 미 국무부는 30일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예년과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이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
-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

● “北식량난 10년래 최악...또다시 기아사태 임박”<美전문가>(5/1)

-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30일 피터슨연구소가 ‘북한식량위기’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10년전 기근사태가 끝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지적



-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식량농업 기구(FAO) 등이 북한의 식량부족을 기술적인 이유로 매년 과대평가해 식량공급이 필요한 곡물의 양을 초과했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이는 빨간 불이 켜지기 직전의 노란 불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 美의회 앞서 탈북자 복송반대 시위 열려(4/30)

- 지난 26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제6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29일 오전 미 의회 앞 ‘태프트 메모리얼 캐럴론 공원’에선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탈북자들의 강제복송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음.
-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국당국이 중국내 탈북자들을 검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복송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중국 당국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8월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올림픽 참가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 北 평양소주 뉴욕에 첫선(4/30)

- 뉴욕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수입한 평양소주는 통관과 검사 등 수입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뉴욕 퀸스의 보관창고에 도착, 이날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판매
- 미국 정부의 허가 아래 수입된 평양소주는 컨테이너 2개 분량인 1천 660상자(1 상자 당 24병)로 지난 달 8일 북한을 떠나 지난 22일 뉴저지의 엘리자베스 항구에 도착했으며 대사추세츠와 메릴랜드주에서도 판매될 예정

● 美하원, 북한인권법 연장안 30일 상정(4/29)

-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이 오는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하워드 버먼)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공화당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과 게리 에커먼, 대 버튼, 크리스토퍼 스미스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음.
- 법안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수속기간 단축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더 많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탈북자들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재 대사 등 미국 고위관리들이 해당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한국정부와 탈북자 진로·신원조회·재정착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중소기업 원가상승 압박에 북한으로 눈들려(5/5)

-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남쪽에 위치한 인구 50여만 명의 작은 도시인 덩타(燈塔)시 공상연합회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조선봉화회사의 초청으로 7일 간 북한을 둘러보고 돌아왔다고 중국 언론이 5일 보도
- 이번 방북의 목적은 해외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단은 방북 기간 북한과 유성페인트공장, 의류공장, 압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각각 체결했음. 이 중 덩타시 차이리자(彩麗佳)화공유한공사는 북한에 300만유로(약47억원)을 투자해 유성페인트공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 중임.

● “中, 北인력 유치해 단동에 애니메이션단지 건설”(5/2)

- 중국이 북한의 애니메이션 인력을 유치해 접경지역인 단동(丹東)에 콘텐츠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일 “최근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2008 중국 문화창의산업투자유치 행사에서 저장(浙江)성 ‘국가 애니메이션 게임 공공서비스부문 유한공사’는 단동시 및 관톈(寬甸)현과 ‘중-조(북한) 애니메이션 및 게임 외주개발기지’ 건설을 위한 합작협의를 체결했다”고 보도
- 쉬아이차오(徐愛巧) 애니메이션게임 공공서비스부문 유한공사 회장은 “하청기지를 단동에 건립하는 목적은 조선(북한)의 애니메이션 개발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가 싸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조선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제작원가를 낮추고 중국 개발 인력의 창의적 기획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북한, 베이징올림픽에 60명 이상 파견(4/30)

- 교도통신은 30일 리경일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국장이 “현재 50명 정도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냈고 5월 말이 되면 60명 이상이 출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리국장은 “역대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 선수단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평양과 베이징 시차가 1시간밖에 되지 않아 유리하지만 33℃ 이상 높은 기온이 걱정”이라고 말했음. 리국장은 메달 전망에 대해서는 “1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 박의춘 北 외상, 訪中 마치고 귀국(4/29)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29일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 박 외무상은 28일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및 양제츠 외교부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북-중 양국 관계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



을 협의하고, 6자회담이 교착 상태를 넘어서 진전을 이뤄야 할 시점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박 외무상은 또 중남하이(中南海)에서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만나 북한은 올림픽을 정치화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하고,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 보도

● 평양 성화봉송, 북중관계 '돈독' 과시(4/28)

- 류샤오밍(劉曉明) 평양주재 중국대사가 중국국제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총서기(노동당 총비서)의 관심하에 조선인민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 동원됐다”며 “조선(북한)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평양 봉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류 대사는 직접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북한이 1959년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해 2만2천여명에 달하는 중공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 세운 '조-중 우의탑'에서 성화를 넘겨받아 중국 대사관 부근의 봉송로를 달리기도 했음.
- 박학선 북한올림픽위원장은 “친선적인 인방인 중국에서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것은 중국 인민의 자랑일 뿐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도 기쁜 일”이라며 평양 성화 봉송행사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시위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평양 성화봉송 개시...김영남 출발행사 참석(4/28)

- 중국의 관영 CCTV는 28일 오전 11시 뉴스시간을 통해 평양에 나가 있는 기자를 전화로 불러 평양 성화봉송이 순조롭게 시작됐다고 보도
- 주체사상탑에서 개최된 성화봉송 출발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장웅 북한 IOC 위원,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장, 박병중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와 리빙화(李炳華) 베이징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장 등 양국 고위인사들이 참석했고, 행사장에는 '전통적인 조중친선 만세'라고 적힌 구호판 등장했음.

라. 기타

● 프랑스 NGO, 대북의료지원 활발(5/3)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프리미어 어전스는 이달부터 평안남도 평성시와 남포시 그리고 황해북도 토산군 등 3개 병원에 대해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음.
- 개보수 작업은 내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술실과 입원실을 개조하고 작년 홍수피해로 무너진 병원 지붕과 파괴된 창문, 고장난 전기시설을 보수할 계획



- 프리미어 어전스는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비롯해 평양 만경대, 평안남도의 남포와 온정, 안주와 회창, 황해북도의 사리원, 황해남도 해주,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함흥과 금야, 함경북도 청진 등 모두 12개 병원에서 정맥주사액 생산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련잔-후진타오 오늘 베이징서 회동(4/29)

- 방중 이틀째를 맞은 련잔(連戰)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이 2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 양안 관계개선 및 협력방안을 논의
- 자칭린 주석은 “련잔 명예주석이 국민당과 공산당 관계와 양안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안 동포들이 긴밀하게 단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련 주석은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은 개인적인 방문”이라며 “후 주석에게 선물로 보낸 조각상 안장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련 주석은 30일 베이징을 떠나 충칭(重慶)과 우한(武漢)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8박9일간의 공식 일정이 끝나는 다음달 6일 대만으로 돌아갈 예정

● 獨정부 보고서 “中 인권 상황 열악”(4/28)

-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독일 외무부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과도한 사형집행과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28일 보도
-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중대한 인권 침해와 민주 국가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이 남발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에 대한 불법 구금, 언론 검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의적인 입법 등 비민주적인 관행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비공개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등 사법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中-프랑스 정부간 갈등 일단 봉합(4/28)

-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프랑스의 장 다비트 레비트 엘리제궁 외교고문은 26일 회담을 통해 양국이 현재의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자는 내용 등 5개항에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7일 발표
- 프랑스는 티베트와 대만이 중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한편 올림픽은 정치와 무관함을 인정하고 올림픽의 성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도 27일 레비트 고문을 별도로 만나 “양



국의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강화는 양국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양국 관계의 강화를 강조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군 美레이시온사와 패트리엇 구축지원 계약 체결”(4/28)
 - Z블롬버그와 UPI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Raytheon)은 지난 21일 미 정부의 외국무기판매(FMS) 사업을 통해 한국에 2억4천100만달러(2천398억여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했음.
 - 레이시온은 지난달 3일에는 기존 한국군 미사일 지휘·통제시스템과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통합하는 2천870만달러 상당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4/29)
 -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4월 29일~5월 1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류홍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왕이 외교부 부부장, 허야페이 외교부 부장조리 등과 만나 다음달 말께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그는 또 최근 불거진 한국 체류 중국인의 과격행동과 관련해 중국 측에 재차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보임.
- 柳외교 “중국과 수형자 이송조약 서명 추진”(5/1)
 - 중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될 전망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중국과 수형자 이송조약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시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외교부 “中시위, 경찰 조사보고 추가 대응”(4/29)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가로 외교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 문 대변인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조직적으로 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조직적 동원에 대해 부인했으며 자기 나라 유학생들에게 우리 국민과의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해 왔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닝푸쿠이 “성화봉송 중 부상자 발생에 유감”(4/28)**

-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뒤늦게 (중국인들의 시위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어제 성화봉송 행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무사히 진행됐다고 생각하며 한국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환영·지지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올림픽은 중국이 아닌 전 세계에 속하는 일로 베이징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한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닝 대사는 이어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한국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양국 국민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성화봉송 시위사태’ 中에 유감 표명(4/28)**

- 외교부 당국자는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닝푸쿠이 주한중국대사에게 전날 일부 중국 청년들이 성화봉송 행사과정에서 과격행동을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정부 당국자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이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성화봉송 과정에서 티베트 정책에 항의하는 국내 시민단체와 친 중국인 시위대간에 충돌이 벌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로서는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한·일 EEZ 경계획정 논의...합의 도출 실패(5/2)**

- 한국과 일본은 2일 도쿄 외무성에서 제9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갖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 한국은 양측 간 EEZ 경계로 독도와 시마네(島根)-기후(岐阜)현 중간선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주장하면서 맞서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담은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

● **한·일, 군사교류 교환각서 체결 추진(4/28)**

- 군 소식통은 “신발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일 간 군사교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군사교류를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각서는 두 나라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상의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소식통은 “교환각서는 양국 군사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문서 또는 대



강(大綱)의 성격을 가진다”며 “군 인사 상호방문과 인도적 목적의 해상수색 훈련 등 군사교류를 정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군의 다른 소식통은 이와 관련, “양국의 군사교류를 위한 종합적인 문서가 없다 보니 양국의 각 군이나 국방부 산하기관, 군 교육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문서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양국은 이미 2005년 교환각서 문안을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고 전했다.

라. 미·중 관계

● 美의회, 中에 탈북난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5/2)

- 미국의 상·하 양원 소속 공화, 민주당 의원들은 1일 베이징(北京) 올림픽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에 탈북난민들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
- 샘 브라운백(공화, 캔자스)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D.C. 의사당 부근에 있는 러셀공원에서 평양예술단 출신들을 포함한 탈북자 10여명과 수단과 티베트 인권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인권남용’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탈북난민들을 조직적으로 송환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중·일 관계

● 中-日 정상회담서 정기 방문 합의할 듯(5/5)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중 한 명이 1년에 한번은 상대국을 정기 방문하도록 합의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최종 조정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보도
- 양국 정부는 정상간 정기방문 시스템 구축을 ‘전략적 호혜관계’의 상징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 양국 정상이 합의해 발표할 정치문서에는 양국간 전략적 호혜관계에 대해 ▲정치적 상호신뢰 ▲중·일 2국간 호혜 협력 ▲인적·문화 교류 ▲아시아 지역 협력 ▲글로벌 과제 협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역사문제에서는 사죄나 반성이란 문구는 포함하지 않고 ‘역사를 직시해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표현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 中-日, 이산화탄소 지중매립 기술협력 합의(5/4)

-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지중에 매립하는 ‘탄소회수·저장(CSS)’ 계획에서 기술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
-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



소를 회수, 연간 100만톤 규모를 저장할 계획인데, 회수한 이산화탄소를 지하유전에 주입할 경우 원유 채굴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다칭(大慶)유전이 저장지로 예정돼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전했다.

● “中-日정상, 온난화 방지 특별문서 채택”(5/2)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일 정상회담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특별문서를 채택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
- 양측은 문서에서 일본측이 제기하고 있는 산업·분야별 온실가스 삭감을 추진하는 방안에 중국측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을 만드는데 협력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절약 기술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후진타오 내달 6~10일 日 방문(4/29)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후진타오 주석은 방일 기간 일본 국왕과 만나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며 일본 국회 지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다.
-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 등을 비롯해 정치, 외교, 경제, 무역, 문화 등 각 분야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점이 될 공동문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